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마르1,22)

작품 : 신무경 읍(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제1독서 신명기 18,15~20

화답송 시편 95(94),1~2,6~7,12,72~9 (© 72과 8L)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1.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2.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3.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7,32~35

복음환호송 마태 4,16

◎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 음 마르코 1,21L~28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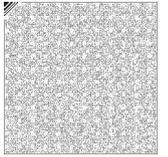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쓰일 2차 헌금에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간의 축일

♣ 28일 : 글라스티아노, 레오니데, 레우치오, 리카르도, 바울리노, 발레리오, 베드로 놀라스코, 안티모, 야고보, 오도, 요셉 프라이나테메즈, 요한, 율리아노, 칸네라, 칼리니코, 토마스 아퀴나스, 티르소, 플라비아노



새로운 권위



해외 원조 주일이기도 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든 이를 꾸짖어 쫓아내자 군중들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마르 1.27)이라며 놀라게 된다. 예수님시대 각종 질병, 특히 뇌질환은 더러운 영이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느님 권능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더러운 영의 제압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은 깜짝 놀랐고 새로운 권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권위(權威)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인 반면 권위적(權威的)이라는 단어는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권위를 권위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권위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된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의 권위적 행태를 질책하셨는데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다녔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꾸짖으셨다. (루카 20, 46 참조) 율법학자라면 의당 율법과 전통규범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일이 직무의 본질이겠지만 그들은 외적인 화려함과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더 컸던 것 같다.

지도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남을 섬기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은 국민들이 ‘호 아저씨’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권력을 통해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았고 죽을 때 책 이외에 몇 벌의 옷,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신발 등이 전

부였다고 한다. 화려한 복장, 인사받기, 높은 자리, 윗자리는 자신의 교만만 드러날 뿐 지도자의 권위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권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존경했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지위의 높음과 소유의 많음이 성공이요 권위의 척도인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권위적인 것일 뿐 하느님의 가치 기준은 아니다. 예수님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남을 섬기는 것이 더 큰 덕임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과 낮춤의 겸손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의 참모습 아닐까 싶다.

김정렬
모세 신부
관리국장



쓰레기장에 가니 거구의 경비원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주 작은 화분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
마치 골리앗이 아름다운 공주의 가는 허리를 잡듯
그는 아주 조심히 작은 물초롱의 허리를 붙잡고
혹시라도 물줄기에 흠이 파어져 꽃이 넘어지더라도 할세라,
가늘디 가늘게 물을 ‘홀리고’ 있었다.
꽃이 ‘쪼로록’ 하고, 가는 숨소리를 내었다.
햇빛이 유난히 환하게 거기 비치고 있었다.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hang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9(월)~30(화)
김정렬 신부(관리국장)
1.31(수)~2.3(토)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1.30(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청년성서사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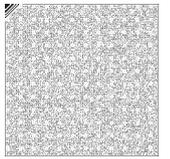
신부들의 수다

2.3(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신부들의 선편표 : 김주현 신부(문현성당)



말하는 것의 차이



얼마 전 집에서 TV로 영화, ‘남한산성’을 보았습니다. 개봉된 지 좀 된 영화였지만 애 엄마와 부담 없이 볼만한 걸 찾다가 이 작품으로 낙착됐습니다. 거의 400년 전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는 영화니 역사도 배울 겸, 예전에 배운 국사 지식도 새롭게 할 겸 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TV 채널 관련, 집안 권력 서열상 하위급에 속하는 저의 의견이 반영된 게 고맙다는 생각에 영화를 보는 재미가 더 쏠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조선시대 암군(暗君) 중 상위로 꼽히는 인조와 요즘 교육부 장관쯤인 예조판서 김상헌, 현재 행자부 장관쯤 되는 이조판서 최명길 등 3명이 빚어내는 대립각, 갈등을 주된 스토리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역사 지식으로 보면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입니다. 단순한 구도지요. 그러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좀 더 풀어쓰면 다른 측면, 요소들이 많습니다. 왕조와 권력의 보존, 죽음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 성리학 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지조, 암흑한 현실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인고의 지혜...

영화는 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개인적 두려움에 떠는 인조의 모습,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두 선비의 고뇌 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관객으로서 제가 읽은 맥락도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에 어둡고 자신들만의 공자왈 맹자왈에 빠져 있는 무능한 정부, 단지 드러난 원칙·의리만 있을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할 전략·방책은 전혀 없는 국가의 외교력, 왕과 사대부의 명분과 이념만 있지 민중의 현실과 실리는 외면하는 완고함 등이 빛어낸 그림자들 말입니다.

영화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김상

헌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김상헌의 자결은 문학적 허구입니다. 역사적 사실에선 김상헌이 죽지 않고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갑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예술과 역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셈입니다. 언론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종교가 얘기하는 방식은 예술, 역사, 언론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계신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준다...”(마르 4, 1~12)

저는 길바닥이나 돌밭쯤 되는 듯 합니다.

■ 박 주 영 쉐레스티노

남천성당 • 언론인 park21@chosun.com

환경과 생명

환경, 믿음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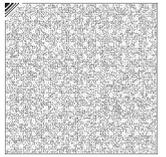
알제리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는 눈이 내리고, 유럽에선 초속 45m의 폭풍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엔 한파와 폭설이 내리고, 미국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 지역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69.4도까지 떨어지고, 호주 시드니 서부 펜리스는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47.3도를 기록하였다 합니다. 북반구의 한파와 남반구의 폭염이 짝을 이루며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전 세계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굶은 날씨는 단순히 내 일상을 잠시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 당장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한다면 구원은 결국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로마 8:22)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강한 이보다 먼저 약하고 병든 이를 찾으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환경파괴로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들고 약한 사람이 먼저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 서둘러 예수님의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마태 25:40)에게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신앙인의 관심사는 다양한 관심사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고, 주님이 실천하신 사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은 오직 믿음 안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woori-pusan@hanmail.net

ME, 세계 최고의 부부 프로그램



ME는 WWME(WorldWide Marriage Encounter)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그 명칭이 알려주는 바대로 '전 세계적 부부 프로그램'이다. 현재 57개국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ME 2박 3일은, '부부가 기적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전 세계에서 증언하고 있다. 1958년 스페인의 칼보 신부가 청소년을 위해 사목하다가, 해당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ME 프로그램을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이후 1967년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실시한 ME에 참석한 깔라거 신부가 부부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미국 가톨릭교회에 보급하

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첫 ME는 1976년에 열렸으며, 부산에서는 1981년에 시작하여 2018년 1월까지 총 354차례의 ME가 개최되어, 부부는 물론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14,500여 명이 수강하였다.

ME는 한 차수에 20쌍 내외의 부부들과 지도신부가 2박 3일(금 19시~일 17시) 동안 함께 머물면서, 부부 대화를 통해 배우자와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ME 이후에 부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배우자와 '대화다운 대화'를 비로소 나누게 된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사랑이 무언지를

새롭게 알아가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아 혼인 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한다.

ME는 문제 부부와 이혼 직전 부부를 위한 상담치료 과정이 아니라,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성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ME는 종교교육이나 피정이 아니라 순수한 부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교와 무관하게 결혼한 지 3년 이상인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언컨대, ME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부 프로그램이다.



2018년 부산ME 일정 참가신청 및 문의 : 465-1010, 010-2703-0155

 제354차 1/26(금)~28(일)	 제355차 2/23(금)~25(일)	 쉐신주말 3/24(토)~25(일)	 제356차 4/20(금)~22(일)	 제357차 5/18(금)~20(일)
 제358차 6/15(금)~17(일)	 제359차 7/13(금)~15(일)	 제360차 8/24(금)~26(일)	 제361차 10/12(금)~14(일)	 제362차 11/9(금)~11(일)
		 제363차 12/7(금)~9(일)		



왜 성당에서는 침묵해야 하나요?

침묵은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입니다. 침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억압되고 강요받은 것,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것, 불편하고 숨 막힐 것 같은 것,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가 떠드니까 말 못하잖아, 조용히 해,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침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가톨릭 영성에서 말하는 '거룩한 침묵'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침묵은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말과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의 고요함을 뜻합니다. 침묵은 영적인 충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침묵입니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기에,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에, 하느님의 면전에서 당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에. 그것이 거룩한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를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당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입을 꼭 다물자 이번에는 성가 왜 안 불러? 하고 야단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침묵을 단순히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참된 침묵은 찬양과 조화를 이룹니다. 침묵도 사랑의 표현이고 입을 열어 찬양 드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에서 침묵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오늘도 당신의 품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사편 46,11)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믿음 증진을 위한 본당 단체 피정에 참여하십시오

- 믿음 강화 피정 프로그램 운영(정하상바오로영성관)

믿음 증진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

세상살이 복잡하고 맘이 심란하면 무엇을 하시나요? 먹고, 마시고, 노는 순간적 기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믿음의 해를 지내면서 영성관은 본당신심 단체 별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각종 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서 머물며 믿음을 더하는 이 피정은 본당이나 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 정	내 용
반나절 피정 (10시~16시)	영성강의, 기도, 십자가의 길, 묵상, 영상시청과 미사봉헌 등
하루 피정 (10시~21시)	
1박 2일 피정	

- ※ 영성관의 특성상 개인 피정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피정은 개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사순피정 : 3.5, 3.20, 3.26
 - 성삼일 묵상피정 : 3.29~4.1
 - 대림피정 : 12.3, 12.10, 12.18
 - 성탄맞이 피정 : 12.21~12.23



모라성요한

밀양

성바오로

하단



교구 소식

‘믿음의 해’ 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②

범일성당(주임 : 김영호 신부, 회장 : 양홍신 토마스)은 대림시기부터 최근까지 냉담교우 모시기 운동을 펼쳐, 지난 1월 21일(일) ‘냉담교우와의 만남’ 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냉담교우들이 신심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망미성당(주임 : 정영

한 신부, 회장 : 주인석 대건안드레아)은 ‘성모님께 봉헌 하는 33일 묵상회’ 행사와 『말씀일기』 실천을



범일



명지



망미

독려하고 있으며, 명지성당(주임 : 김상균 신부, 회장 : 안병현 베드로)에서는 예비신자들에게 묵주기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가정문화 체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 이요한 신부)는 지난 1월 11일(목)~12일(금) 1박 2일 동안 북한 이탈주민 67명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 봉사자 52가정과 가족의 연을 맺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삶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요한 신부는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한겨레임을 확인하였고, 사랑과 일치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다.”며 “도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펠리치타 캠프

지난 1월 17일(수)~19일(금)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 김영규 신부)는 2018학년도 수시 합격자 신입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펠리치타

캠프’ 를 실시했다. 입학 전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학교 탐방, 진로특강 및 토크 콘서트, 연탄 나눔 봉사 활동(범천5동 일대 연탄 8,000장 전달),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진행되었다.



2월의
도서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 엔도 슈사쿠 지음 ■ 맹영선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13,000원



이 책은 가톨릭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비신자,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하며 고

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경 저술의 배경을 비롯하여, 크리스마스의 구유에까지 깃들여 있는 신학적 지식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내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지

■ 안여일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0,000원



이 책은 저자가 호스피스 봉사, 본당 연령회 등의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사람들의 애절한 사연과 그들과 함께하며 겪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 '유방암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저자가 30년 넘게 해 온 봉사 여정의 삶을 하나하나 담고 있습니다.

저, 다윗이에요

■ 장재봉 지음 ■ 생활성서사 ■ 12,000원



이 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자 성왕으로 알려진 다윗 임금의 진솔한 자기 고백적 편지로, 한 편의 재미있는 소설과 같은 성경 인물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장재봉 신부의 시각을 통해 다윗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성경을 접하며, 또 영성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새사제 미사

· 2,2(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5층 강당 / 문의: 629-8760(성소국)

성소분과위원장 연수(교육 및 미사)

· 2,11(일) 09:30~14:00 · 신학대학
대상: 본당의 성소분과위원장 / 회비: 1만원
신청마감: 2,2(금) / 문의: 629-8760(성소국)

2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부산 지역] 2,11(일) / 2,25(일) 15:00~18:50
사전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본 당

사직성당 전례조각초 전시회 <사랑으로 빛을 조각하다>

· 2,1(목)~4(일) · 사직성당 마리아관
문의: 010-4147-6501

양정성당 Per Dio 자선음악회

· 2,7(수) 19:30 · 양정성당(무로공연)
출연: 백선경, 김아름, 양승엽, 김현성, 서치환, 정승화, 김기환 / 반주: 김효성, 김현정
문의: 010-7767-4390(후원: 부산가톨릭음악협회)

수영성당 사무원 구함

자격: PC, 엑셀 능숙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 문의: 761-4901

수정마을성당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집

문의: 337-9445(사무실)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2,2(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751-8693

바오로아람터 후원월례미사

· 1,29(월) 10:30 · 바오로아람터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1,29(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 1,30(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임석수 신부 / 지휘: 최금화
문의: 010-8544-7530(단장 채상득)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1,31(수) 19:30 · 망미성당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010-7339-8545 / 단장: 김종민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2,6(화) 13:00~15:00 연합셀기도(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010-2428-5785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2,2(금) 11:00 · 범일성당
대상: 회장,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동문) 정기총회

· 2,3(토) 15:00 총회, 16:00 파견미사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내 신학원 대강당
문의: 462-0334

부산가톨릭선교마라톤회 행사

· 2,25(일) 08:20 · 밀양마라톤현장미사
주례: 윤화동 지도신부 / 문의: 010-6520-8834
06:30 온천역, 07:00 부민병원 앞 버스 출발

도로시의집(무료진료소) 봉사자 모집

봉사: 매주 일요일 15:00~18:00 (월 1~2회)
· 초량성당 무료진료소 / 봉사업무: 치과, 치위생과, 내과, 간호, 약제, 물리치료
문의: 010-4499-0100(가톨릭노동상담소 노동사무국)

2018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요일	교육 과정명	대상	기간 및 시수	수강료
월	수도자 아카데미	교구 내 모든 수도자	매월 한 강좌씩 수강 가능 (3월, 4월 매주 금 14:00~16:00)	강좌당 3만원
화 수 목	신학원 정규과정(2년)	세례받은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 및 수도자	주간: 주 3일(화 11:00~17:00, 수-목 14:00~17:00) 야간: 주 3일(화-목 19:00~21:00)	한 학기당 주간 60만원 야간 50만원 (입학금 5만원)
금	신학원 심화과정	신학원 졸업생	6주간 12시간(금 14:00~16:00)	12만원
토	기도학교	모든 신자	3월부터 12주간(매주 토 15:00~17:00), 기도장의와 수련	20만원

원서교부: 본원양식다운 (입학원서, 이력서) <http://sinhak.cup.ac.kr>, 사무실
접수: 1월 29일(월)~2월 13일(화) 방문, 등기우편 문의: 464-7591(신학원 교무실)
부산시 금정구 기차로 102번길 56-7(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내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솔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나가사키 성지순례
5/14~17(3박 4일) 14명 모집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황백현
(프란치스코)

보험틀니 / 임플란트 / 심미보철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토마스)
www.박진철치과.com
552-2811, 553-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

포장이사 전문 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업,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라)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몽유에 웨딩(부산)
명품드레스, 스튜디오촬영, 신부대기실연출
※ 교우우대(대표상담) ※
봄 예식 할인 행사적용
대표 김경애(비아)
803-0301 범내골(1호선)
지하철 7번 출구 앞

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

준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시 동래구 총령대로 372(안락동)

6 · 연중 제4주일 (해의 원조 주일)

♣ 2월 : 코르넬리오, 라우렌시오, 브루노, 아달발도, 아델로가, 아프로니아노, 요안나 드 레토낙, 칸디도, 펠리치아노, 포르투나토, 플로스쿨로, 피르모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2.2(금) 22:30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29(월) 19:30 전포성당
 · 1.31(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 : 1.31(수) 11:00~16:00
 * 매듭을 푸는 성모님 9일기도 2,7(수)~4,4(수)
 미리 신청받습니다 / 회비 : 2만원
 - 교구 성령목상회
 439차(젊은이) : 2.2(금) 19:00~4(일) 17:30
 440차(일반) : 2.9(금) 19:00~11(일) 17:30
 회비 : 10만원 (교재비 5천원)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 전국 수도자 성직자 목사회(152차)
 · 2.5(월)~9(금) / 문의 : 010-8345-4445

메리놀병원 어린이집 영아 모집

0세(6개월 이상), 만1세(2016년생), 만2세(2015년생)
 문의 : 010-2288-5657

메리놀병원 전례봉사자 구함

평일(11:30), 일요일(09:00) - 해설, 독서, 반주
 문의 : 461-2296(원목실)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1.29(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이한택 주교(의정부교구)

첫금 철야 첫토요일 신심미사

철야 : 2.2(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박성준 신부(대전교구)
 신심 : 2.3(토) 09:30 기도, 11:00 미사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사전신청)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가톨릭센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

대상 : 고음악 합창음악을 함께하실 남성 단원
 2차 오디션 : 2.12(월) 20:00 가톨릭센터 302호
 -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전 (악보 당일 제시)
 정기연습 예정 : 매주 월 19:00 가톨릭센터 302호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가톨릭서예인회 1월 정기모임

· 1.29(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 010-8521-9522(회장) * 회원 수시 모집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30(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2.2(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2.3(토) 10:00 · 송도성당
 문의 : 241-1601, 253-1601

새예루살렘 세계 병자의 날 행사 및 전례

· 2.11(일) 14:00 · 새예루살렘 공동체
 주관 : 왕영수 신부(상담, 안수, 고해성사, 병자성사, 치유미사) /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예수성심침교회(재속회) 회원 모집

모토 :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 받으소서
 대상 : 만 60세 이하 결진성사 받은 신자
 모임 : 2.13(화) 09:30 푸른나무교육관
 문의 : 010-3857-4708

심리상담 강좌 <워너캣>

· 2.26~4.30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과정1, 부모자녀관계회복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3.20(화)~23(금) · 나가사키순례
 · 4.23(월)~5.5(토) · 서유림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or.kr

수도회 성모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스승예수제자수녀회	2.4(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4(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인간존중 생명사랑 부산가톨릭대학교

2018학년도 전기 편입학 등록

■ 원서접수 1월 31일(수)~2월 2일(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부산성모병원 신경과

신경과 전문의 나주영 진료개시

전문분야 : 뇌졸중, 치매,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병, 수면장애
 문의 : 933-7957(신경과)

부산성모병원은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가톨릭신문 북을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사진, 감성에 디자인하다.

사진 교실 초급반 개강

개강. 1월 30일(화) 매주 화요일 19:00~21:00
 강사. 최경현 (사진작가) / 15회 과정(수강료 20만원)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후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

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법일동역 1번 출구 50m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법무법인 울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경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최병락, 남화성,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의: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홍유진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주)온누리투어

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
매주 1회 부산 출발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양코르왓 일정 포함)

853-1333, 010-4843-4020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네스)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

욕실리모델링전문 욕실사랑

타일시공

www.yLove.kr

김상오(야고보)

상담문의 **724-6774**
010-3225-3194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마태오)

558-7575

은전장역 동래골플러스(튀뵈) 우성빌딩 3층